

나의 취미는 ‘바둑’이다. 여자인 내가 취미가 바둑이라고 하면 다들 신기한 눈으로 나를 바라본다. 나는 어린 시절 부모님을 졸라서 바둑학원에 다녔고, 20대에는 바둑 강사로, 대학 때는 바둑동아리 기우회에서 활동하였다. 나는 전체적으로 따지면 기력은 높은 편이 아니었지만, 바둑 대회를 나가면 늘 여자 리그에서 여자다승상을 수상하곤 하였다. 지금은 직장인의 한 사람으로 바둑을 자주 두지는 못하지만, 인터넷 바둑을 두거나 동호인 바둑 선수로 동호인 리그전에 참가하기도 한다.

바둑은 대표적인 두뇌 스포츠다. 성별, 나이, 국적과 상관없이 승부할 수 있는 바둑은 얼핏 보면 남녀가 동등하게 승부를 겨룰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바둑은 이전까지 남성의 전유물로 여겨져 왔고, 현재 활동하는 바둑기사와 동호인 선수들만 보아도 대부분이 남성이다. 현재 한국기원 9단 바둑기사는 남성이 103명, 여성이 8명이라고 한다. 나는 바둑을 배울 때와 대회에 나갈 때 ‘왜 남성들이 나보다 더 빨리 실력이 늘지?’, ‘왜 남성들이 바둑을 더 잘 두지?’라는 의문을 가지곤 했었다.

어떠한 육체 스포츠에서도 여성이 남성의 벽을 넘기는 어렵다. 남녀는 신체 구조뿐 아니라 근육량, 지구력, 순발력 등에서 결코 평등한 조건이 아니다. 대부분의 스포츠 종목들이 남녀를 구분해 경기를 치르는 것도 그런 이유다. 그러므로 성별을 구분하여 경기를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불평등하거나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은 바둑이라는 종목 또한 마찬가지이다. 대학생 바둑대회도, 생활체육 대회, 동호회 대회 등에서도 여성부는 따로 편성되고 있다.

체력의 차이는 오랜 시간 활발하게 정신활동을 하는 바둑에도 큰 영향을 준다. 바둑을 둔다는 것은 매우 활발한 정신활동으로 특히 바둑기사와 같이 고도의 집중력을 몇 시간 동안 연속으로 발휘한다는 것은 많은 체력의 소모가 필요하다. 그리고 남녀는 뇌의 구조에서도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우월한 기능 또한 다르다고 한다. 개인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대체로 여성은 언어능력이, 남성은 공간 지각 능력과 수학능력이 우월하다고 한다. 이러한 뇌의 차이에서 남성이 바둑이라는 스포츠에 비교적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바둑이 격한 신체활동을 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바둑에 여성의 참여나 관심이 적은 것을 나는 무척 안타까운 마음이었다. 내가 근무했던 바둑학원이나 기우회에 여성의 비율이 10% 정도에 불과했다. 과거에는 주로 바둑을 즐기던 기원은 여성이 쉽게 다가가기 힘들었고 여성의 바둑 접근성이 떨어졌다. 하지만 지금은 바둑학원도, 기우회도 20~30%의 여학생들이 있고, 여성 바둑 동호회도 활성화 되어있고, 인터넷 바둑도 가능하므로 하고 싶다는 마음만 있다면 여성도 언제든 바둑에 접근하고 즐길 수 있다. 바둑이라는 스포츠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고 저변을 확대하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사회 전반적인 분야에서 ‘성 주류화’라는 단어가 떠오르고 있다. 스포츠 분야에서도 평등을 실천하기 위해서 성 주류화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성 주류화는 남녀 모두의 다양성을 중시하는 것이다. 스포츠에서의 평등은 성별을 무시하고 무조건 같이 경기를 치르는 것을 우리는 평등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것은 앞서 말한 여러 가지 이유에서 바둑에서도 마찬가지이고, 남성리그와 여성리그를 분리해서 경기를 하는 것이 평등한 것이다. 나는 바둑을 두면서 남녀의 다양성과 차이는 인정받았지만, 남녀의 차별을 당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이렇듯 차별은 하지 않되 남녀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평등한 것이고 당연한 것이다. 여성이라고 해서 불합리한 대접을 받은 적도 없고, 존중받지 아니한 적도 없다.

내가 경험한 바둑뿐만 아니라 다른 스포츠 경기에서도 여성들의 관심과 참여가 늘어나고, 저변의 확대가 있기를 기대하고 소망한다. 남성과 여성은 신체적이나 구조적으로 다르다. 다른 것이지

어느 한 성(性)이 틀린 것은 아니다. 서로 그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면 스포츠에서의 평등, 나아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평등이 실현될 것이라고 믿는다.